

2008. 10.15(水)

第58回 韓經研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노 대 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2008. 10. 15

기획재정부 차관보 노대래



목 차

I . 최근 경제 금융 동향

II .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노력

III . 향후 정책 대응

[맺음말]

I . 최근 경제 금융 동향

I. 최근 경제 금융 동향

대외여건 악화로 저성장 · 고물가 · 저고용 · 경상수지적자의 어려움 지속

[경기]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생산활동도 큰 폭 위축

- 상반기 5.3% 성장하였으나, 7~8월 소비 · 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

	2007년			2008년					
	연간	상반	하반	1/4	2/4	상반	7월	8월	1~8월
GDP	5.0	4.5	5.4	5.8	4.8	5.3	-	-	-
GNI	3.9	4.1	3.8	1.3	1.3	1.3	-	-	-
격차(GDP-GNI)	1.1	0.4	1.6	4.5	3.5	4.0	-	-	-
소비재 판매	5.3	5.0	5.7	3.9	2.5	3.2	3.9	1.5	3.1
투자	8.4	8.6	8.6	8.4	8.6	9.6	8.6	1.9	8.6

[투자] 소비투자 증가세는 정체 상태(상반기 8.6%)

- 대기업과 제조업 투자는 회복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투자는 크게 부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3.4	8.0	7.4	8.3	11.0	4.4	1.0
- 대기업	10.4	16.0	8.1	7.4	1.8	△7.5	15.4
(제조업)	10.7	21.4	7.4	△1.0	△4.4	△11.0	22.7
(서비스업 등)	9.9	5.0	9.6	26.9	15.4	△1.2	2.0
- 중소기업	△3.4	△2.2	6.5	9.6	21.3	22.3	△12.6

❖ [물가] 하반기 들어서도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

- 유가하락 효과가 반영되면서 8월 이후 상승세 둔화(9월 5.1%)

* Dubai(\$/B) : (7.4)141(사상최고) → (7월말)123 → (8월말)111 → (9월말)88

		2007년		2008년					
		상반	하반	1/4	2/4	상반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2.3	2.8	3.8	4.8	4.3	5.9	5.6	5.1
기여도 (%p)	공업제품 (석유류)	0.32	0.83	1.78	2.60	2.19	3.48	2.95	2.82
	개인서비스	△0.72	0.38	1.04	1.46	1.25	2.02	1.57	1.21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1.08	1.11	1.26	1.55	1.40	1.73	1.80	1.85

- 미국 : (07년) 2.9 → (08.7) 5.6 → (08.8) 5.4, 일본 : (07년) 0.0 → (08.7) 2.3 → (08.8) 2.1,
EU : (07년) 2.1 → (08.7) 4.0 → (08.8) 3.8

❖ [고용] 8월에도 16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 부진 지속

- 내수 부진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등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에 기인

* '08.1~8월중 취업자 증가규모 18.3만명 ('07년 평균 28.2만명에 비해 약 9.9만명 감소)

	2007년			2008년				
	연간	상반	하반	1/4	2/4	상반	7월	8월
취업자 증감(만명)	28.2	27.7	28.7	20.9	17.3	19.1	15.3	15.9
- 상용직	41.6	36.3	46.8	43.5	44.8	44.2	38.1	34.4
- 임시·일용직	0.4	3.6	△2.8	△12.3	△15.9	△14.1	△14.3	△12.3
- 비임금	△13.7	△12.3	△15.3	△10.9	△11.5	△10.9	△8.3	△6.2

■ [수출입]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고유가 등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

	2007년			2008년						
	연간	상반	하반	1/4	2/4	상반	7월	8월	9월	1~9월
수출(%)	14.1	14.4	13.9	17.4	23.2	20.4	36.0	20.6	28.7	22.9
수입(%)	15.3	14.0	16.6	28.8	30.1	29.4	47.2	37.0	45.8	34.1
무역수지(억불)	* 지역별 수출 비중(08.1~9월, %) : 미국(10.6), 일본(6.6), EU(13.8), 중국(22.5), ASEAN(11.9)									
	146	75	72	△65	1	△63	△20	△38	△19	△142

■ [경상수지] 8월까지 △126억불 적자

유가하락 효과가 반영(시차 2~3개월)되는 10월부터 흑자전환예상

- 유가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 축소('07.1~8월 190억불 → '08.1~8월 19억불)
*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효과 : △117억불('08.상), △177억불('08.1~8월)
-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07.1~8월 △147억불 → '08.1~8월 △138억불)

	2007년			2008년					
	연간	상반	하반	1/4	2/4	상반	7월	8월	1~8월
경상수지(억불)	60	△16	76	△52	△1	△53	△25	△47	△126
- 상품	294	130	164	△12	57	45	3	△28	19
- 서비스(여행수지)	△206	△106	△100	△51	△43	△93	△25	△20	△138
	△151	△73	△78	△30	△28	△58	△15	△11	△84

리먼사태(9.12)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유동성 상황 악화

[국제 금융시장] 주가 하락, 신용경색 확산 등 불확실성 확산

- 미 규제금융법안 처리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 불안심리는 당분간 지속 예상

구 분		'07년말	08.8월 말	9.30	10.1	10.2	10.10	07년말 대비
주 가	美 다우지수	13,264.8	11,543.5	10,850.7	10,831.0	10,482.9	8451.2	△36.3%
금 리	US Libor(3개월)	4.70	2.81	4.05	4.15	4.2	4.82	+12 bp
	신흥국 가산금	239	299	414	419	435	653	+414bp
* 세계 주요증시 하락률('07.10월 이후) : (상하이) △62%, (홍콩) △44%, (일본) △35%,								
환 율	엔/달러	111.33	108.80	106.40	105.77	105.34	103.68	△9.6%
환 율	달러/유로	1.4390	1.4374	1.4093	1.4009	1.3819	1.3408	△8.1%

[국내 금융시장]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정한 모습

- 투자심리 불안, 미 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불안정

	9.12	9.16	9.18	9.29	10.10	9.12일 대비	07년말 대비
주가(KOSPI 지수)	1,477.9	1,387.8	1,392.4	1,456.4	1,241.5	16.0% ↓	34.56% ↓
환율(원/달러)	1,109.1	1160.6	1,153.3	1,188.8	1309.0	18.0% ↑	39.8% ↑
금리(국고채 5년물)	5.71	5.55	5.95	6.01	5.25	△46bp	△53bp

▣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장단기 차입시장의 어려움 지속

- 초단기자금 금리는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기간물은 3배 이상 상승

조달금리	8.29	9.19	9.22	9.23	9.24	9.25	9.26	9.29	9.30	10.1	10.2
O/N 금리(%)	2.50	5.00	3.50	3.25	3.30	2.90	2.80	2.80	8.00	4.50	4.00
기간물(3月, bp)	91	-	-	-	-	-	250	250	300	300	300

- 초단기자금(O/N)을 제외한 기간물 차환이 어려운 상황

▣ [기업 자금사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모습

- **은행 중기대출** :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로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 중기대출 증가(조원, 기간중) : (1~7월평균)5.9, (7월)6.1→(8월)2.6→(9월)2.9 (잔액 416.7조원)
- **수출 중소기업** : 무역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 수출입은행도 기존 무역어음재할인 규모(10억달러)를 축소하는 상황
- **KIKO** : KIKO 손실확대로 일부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위험 증가
- **건설사** :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해 특히 중소 건설사 유동성 상황 악화
* 미분양주택(만호) : (07.12)11.2→(08.3)13.2→(08.6)14.7→(08.7)16.1

[참고] 최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검토

▣ [외채] 08.6월말 4,198억불이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

- 환헤지로 인해 발생한 외채 등 상환부담 없는 외채가 총외채(4,198억불)중 1,518억불(한은추정)
 - 환헤지용 해외차입(938억불) : 선박수출중도금 및 해외증권 자산과 연계
 - 선박수출선수금(509억불) : 선박 인도시 소멸
 - 직접투자중 대부투자(71억불) : 직접투자 관계사간 차입
- 유동외채 비율 '08.6월말 86.1% (안전성 기준 100% 이하)
- 단기채권(3,357억불) > 단기채무(2,223억불)

	05년말	06년말	07말	08.3월말	08.6월말
대외채무(억불)	1,879	2,601	3,822	4,138(316)	4,198(60)
유동외채비율(%)	41.2	57.8	75.8	81.8(6.0)	86.1(4.3)
대외채권(억불)	3,171	3,809	4,177	4,270(93)	4,225(-45)
순대외채권(억불)	1,292	1,208	355	132(-222)	27(-105)

❏ [외환보유액] '08.9월말 2,397억불(세계 6위)

- 선진국 국채 등에 투자되어 있으나 외환보유액 대부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가용재원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억불)

	2006	2007	'08.7	'08.8	'08.9
외환보유액	2,390	2,622	2,475	2,432	2,397
유가증권	2,020	2,318	2,084	2,093	2,172
예치금	364	300	386	334	220
기타자산	6	5	5	5	5

❏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 외국과 달리 갭비율 · 유동성 비율 등 엄격한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 갭비율 및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모두 100% 수준 유지

	'08.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외화유동성비율($\geq 85\%$)	101.7	101.2	101.7	100.5
1개월갭비율($\geq \Delta 10\%$)	1.1	1.3	0.9	1.7
7일갭비율($\geq 0\%$)	2.3	2.5	2.9	2.8

II.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노력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2.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리먼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투자심리 안정 노력

- 3.5조원의 유동성 공급 : 한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유동성 공급(9.18일)
- 외화자금시장에 외화유동성 공급
 - 외평기금에서 일시적으로 외화스왑시장에 100억불 이상 공급
 - * 외화스왑시장 : 일정기간동안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시장
(추후 공급한 달러를 회수하는 경우 외환보유액은 회복)
 -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중 은행에 50억불 공급
- 주식시장 안정 조치
 - 주식 공매도 금지 (시장상황 안정시까지)
 - 자사주 일일 매입한도 완화 (1%→10%, 연말까지)
- 원화 환율 상승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한 쏠림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 지속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

- KIKO 손실기업의 재무여건을 감안하여 일괄청산, 분할상환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
- 국책은행(산은 등) 중소기업 자금공급액 확대(3.3조원)
 - * P-CBO를 통해 1조원 추가 지원
-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4조원 확대 운용
- 일시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자금 확대(200억→500억, 중기청)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시행, 급격한 거품 붕괴 예방

- **금융규제 완화** :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중 분양가 10%이상 인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60% → 70%)
- **세제 지원**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감면(분양가의 2%→1%)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3년→5년)
- **환매조건부 매입** : 건설중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분양가의 70~75%)

2.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10조원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추진

- 근로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등 단기적 부담 경감
-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등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 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마련

-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28조원 감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 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마련

-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중점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 추진

- 밀, 옥수수, 석유제품 등 127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4.1일, 8.7일) : 7,500억원 지원 효과
-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 석유제품 상표표시 규제 폐지, 배타적 공급계약 개선

■ 규제 혁신 등 지속·장기 성장 기반 구축

- 1~2차 기업환경개선대책(6.11, 9.18) 및 1~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 추진(4.28, 9.18)

■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50조원 규모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추진(9.10일)

- 7대 경제권별 핵심 선도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1~3차) 추진

- 3차(8.11일, 8.26일, 10.10일)에 걸쳐 101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 추진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8.27일) 등 녹색성장기반 조성

- * 에너지 효율 제고('07년 0.341 → '30년 0.185),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07년 83% → '30년 61%), 재생에너지 비중제고('07년 2.4% → '30년 11%)

✓ 각종 규제 등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당면 애로사항(37개) 해소방안 마련

■ 추진완료 : 군사시설 규제완화, 창업관련 규제개선 등 12개 과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완화, 제한보호구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의업무의 지자체 위탁 확대
- 창업규제 개선 : 창업절차 간소화방안(4.30)을 마련하여 창업기간 단축(167일 → 68일) 및 창업비용 절감(4,400만원 → 1,900만원)
- 지방 골프장 그린피 인하 :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부담 완화(개별소비세, 재산세 등)

■ 정상추진 : 하이브리드차 지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등 20개 과제 → 세부 추진방안 마련중

- 하이브리드카 R&D 지원 : '친환경차개발 5개년 계획 추진중
-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 : '09.1.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공제 용건 완화

■ 검토진행('08년말) : 제2롯데월드 등 2개 과제 → 추진방향 검토중

-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규제완화 :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 검토중
-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
 -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

■ 추진공란 : 석유산업 기업결합 예외조항 신설 등 3개 과제

-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석유화학산업에 한해서 별도의 예외조항
신설 공란(공정거래법상 일반적인 예외인정 요건 구비)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기업에 대한 상속세제 개선 : 최대주주 보유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는 경제적 실질, 조세평등주의에 부합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 최대주주 지분은 일반주식보다 20~30% 비싸게 거래)

IV. 향후 정책 대응

1.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
2. 물가 및 민생안정 노력 강화
3.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4.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5. 성장능력 지속 확충
6. 지속적인 FTA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

1.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화 유동성 확보 노력 강화

▶ [일일점검체제] 국내 은행별 외화자금 과부족분을 일별로 파악

- 은행별 외화자금 건전성 점검 지속(일일단위 점검)
- 장단기 자금 만기도래일 사전 점검 시스템 마련

▶ [외화유동성 지원] 외화스왑시장 및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

- 외평기금에서 일시적으로 외화스왑시장에 100억불 이상 공급
-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 직접 공급
- 외채, 외환보유액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불안 심리 해소

▶ [국제협력 강화] 역내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의 조속한 완료 추진(현재 '09년 완료 목표)

* CMI : ASEAN + 3(한중일) 역내 외환위기사 통화스왑을 통해 상호자금을 지원하는 위기대응체계
일본·중국 등 6개국과 수혜 235억불, 지원 185억불 지원 체계 구축
(현재 800억불 규모의 다자계약으로 발전시키는 논의 진행중)

2. 물가 및 민생안정 노력 강화

◆ [물가 안정] 공공요금 안정 관리,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적·구조적 대응

- 공공요금 안정 관리 : 철도·상수도·등은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은 인상폭을 최소화
 - 지방공공요금은 특별교부금 배부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 유도
- 유통구조 개선 : 유통단계에서의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
 - 농산물은 시·군 유통회사 설립, 농산물·가공식품 직수입·병행수입 확대

◆ [민생 안정] 유가환급금(총3.5조원), 민생추경예산(2.0조원) 조기 집행

- 유가환급금 지급 : 11~12월중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총 1,760만명)에 대해

최대 24만원 지급

근로자 - 근로자 : 980만명 - 일용근로자 : 384만명	'07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
	'07년 총급여 3,000~3,600만원	3개 구간 감액지급(18. 12. 6만원)
자영업자(400만명)	'07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
	'07년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3개 구간 감액지급(18. 12. 6만원)

- 민생추경예산(2.0조원) 집행

* 저소득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급(월 2만원), 농어민 비료가격 안정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등

◆ [민생안정 재정 지원] 세제개편, 예산안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 강화

- **세제 개편** :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08~’09년 16조원 감세중 62%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에 귀착)
- **’09년 예산안** : 복지(9.0%)·교육(8.8%) 지출 증가율이 전체 예산증가율(7.2%)을 상회

◆ [주거 안정]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

- **주택공급 확대** :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의 주택 공급
 -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

◆ [생활공감 정책] 10대 과제와 관련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

* 생계형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의무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저리대출 확대 등

◆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의료·통신·교육비 등 지원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7월),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 [금융 소외계층 지원] 서민·금융소외자의 금융이용상 애로 해소

- 기초생활수급자 및 1천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환승지원 시범사업 실시

(’08년 하반기 46만명 지원)

3.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 [유동성 공급] 즉각적인 대응체계 확립과 유동성 공급 확대

- 일일 유동성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체제 구축’
 - 금융시장 관련 “합동실무대책반(재정부)” 및 “중기유동성대책반(금융위)” 등을 통해 일단위로 점검·대응
- 필요시 한은의 RP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자금시장 등의 안정 도모

▶ [중소기업 자금]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신속히 유동성 공급 (KIKO 손실기업 포함)

- 주요은행과 신·기보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중기지원 Fast Track”시행 (08.10월 중)
-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유동성(4.3조원) 지원 및 신용보증지원 규모 4조원 확대

▶ [건설사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 검토

- 지방 미분양 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즉시 추진(08.11)
- 지방 미분양 상황 및 건설사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 검토

4.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책 추진

- 학비 부담이 없는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해 현장중심형 기능인력 양성
(’08.10.2일 9개교 선정완료, 2011년까지 50개교로 확대 발전)
-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출)
- 7대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 육성 등 광역 경제권 활성화
 - * 30개 SOC 투자 프로젝트 선정·추진(향후 5년간 50조원 투자), ’09년중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착공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미래산업·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성장유망성이 높은 미래산업(10만명) 글로벌 청년리더(10만명) 양성

- 미래산업 청년리더 : 신재생에너지, 로봇, 문화콘텐츠 등 인력양성에 5년간 1조원 지원
- 글로벌 청년리더 :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 양성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08년 4/4분기중 1.2조원 규모 추진

5. 성장능력 지속 확충

▶ 감세 및 공공부문 지출 효율화

- **세제 개편** :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등 저세율구조로 전환
 - * 소득세 : 소득세 구간별 세율 2%p 인하(8~35% → 6~33%)
 - * 법인세 : (낮은 세율) 현행 13% → ('08년 귀속) 11% → ('10년 귀속) 10%
(높은 세율) 현행 25% → ('09년 귀속) 22% → ('10년 귀속) 20%
- **'09년 예산안**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 구현에 노력
 - * 예산규모(조원) : (08) 195.1 → (09) 209.2 (7.2% 증가 ; GDP 경상성장률 7.4%)
- **공기업 선진화계획 지속 추진**

▶ R&D 등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R&D 투자 확대** :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확대 ('07년 GDP의 3.8% → '12년 5%)
- **R&D 세제 지원 강화** : R&D 준비금 제도(매출액 3%) 도입, R&D 시설투자세액공제 인성(7→10%)
- **SOC 투자 확대** : SOC 예산 확대('08년) 19.6조원 → ('09년) 21.1조원, 7.9% 증가
민간차입을 통한 선시공제도 확대(계속비 지정규모 ('08년)1.9조원 → ('09년)4~5조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규제 개혁

● **노사관계의 법치화** : 노사간 자율협상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회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

●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정보통신 : 통신업체의 신규진입 및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개선

*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 인가대상 기간통신 사업자도 지배력 남용우려가 해소된 경우 신고제로 전환 허용

* 임원결격사유 합리화 : 기간통신 사업자 임원결격 사유기간 및 범위 개선

- 물 류 : 항만·도로 등 물류 관련 규제 집중 개선

*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 : 하역장비의 현대화·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인력 의존형 요금체계 단순화·합리화

* 컨테이너 보세처리장 운영 : 항만밖의 컨테이너 보세처리장(ODCY) 운영기한 연장

* Tug Car 등록기준 합리화 : Tug Car 배출가스 인증체계 변경을 통해 공항보호구역외에
일반도로에서도 화물이동을 위한 운행 허용

●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지속 추진** : 유망 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서비스

6. 지속적인 FTA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

▶ [FTA 추진] 주요 교역대상국과 지속적인 FTA 추진

- 한·미 FTA 비준 마무리 및 경제적 실익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EU FTA 추진
- 실질 타결된 인도와의 FTA를 완료하고 한-GCC(아랍 6개국 협력기구) FTA도 추진

▶ [기후변화협상 대응]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

- '09년중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를 공표, 개도국의 참여 유도

▶ [개도국 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 등 ODA 확대

* EDCF 승인실적(억원): ('04)2,433 → ('05)2,944 → ('06)3,322 → ('07)5,542

- 개도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

▶ [남북 경협] '상생과 공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내실화

- 비핵화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 리먼사태(9.12일)에 따른 미국의 구제금융법안(7,000억불) 통과(10.3일)로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전망
- ✦ 정부는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내 자금·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
 -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추진
- ✦ 각국의 시장안정 노력과 정책공조 강화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 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는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의 통합된 노력과 지원이 절실